

이이남의 '한국적 미디어아트' 서울 찍고 아시아·유럽 나들이

전통 미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이이남 작가가 올해 전국을 비롯한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에 다양한 한국적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이 작가는 8월28일까지 서울 DDP 디자인박물관에서 열리는 간송문화전에 참여해 '꿈 속의 선비', '미인도와 오송빌 백작부인'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풍속인물화를 '일상', '꿈', '풍류' 3가지 주제로 분류해 관람객들을 맞는다.

이 작가가 출품한 '꿈 속의 선비'는 단원 김홍도의 명화 '마상청영도'를 현대적인 미디어 예술로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마상청영도' 실사에 애니메이션 기법을 추가해, 화면의 인물과 새들을 움직이게 했다. 나뭇잎은 봄날 오후, 산행 나온 선비가 소재인 원작 내용에 작가 특유 상상력을 더했다.

'미인도와 오송빌 백작부인'에서는 한국 고전 신윤복의 '미인도'와 앵그르의 '오송빌 백작부인' 옷이 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작가는 옷이 서로 바뀌는 단순한 이미지 교차를 통해 문화적 소통을 이야기한다. 사람이

8월28일까지 서울 간송문화전

풍속 인물화 재해석한 작품 선 배

5월 스위스 '세계의 정원'전 한국 대표

6월 베를린 파인아트갤러리 개인전

7월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페스티벌' 참여

아닌 재미들이 옷 조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해학과 풍자가 특징이다.

이 작가는 4월말에는 유럽행 비행기를 탄다. 29일부터 6월17일까지 독일 베를린 안도 파인아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이 전시에서는 '자승자박', '묵죽도', '청죽도', '수하오수도', '박연폭포' 등 대표작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묵죽도', '청죽도'는 한국 고전 미술 '사군자'를 미디어아트로 표현한 작품이다. '자승자박'은 붓 움직임을 0.01초 단위로 묘사하며 추사 김정희의 서예작품을 형상화하는 미디어 설치작품이다. 이어 10월에는 최형식 담양군수와 함께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담양 소재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5월7일부터는 10월2일까지 노르웨이 베스트포텐 미술관에서 열리는 '한국아티스트 그룹전'에 참여한다. 유럽 시장에 한국작가를 꾸준히 소개하고 있는 초이앤라거갤러리가 주최한 이번 전시에는 이 작가를 비롯해 백현진, 이세현, 최수양 등 작가 22명이 함께한다. 이 작가는 독일에서 선보인 '묵죽도'와 '수하오수도' 등을 출품한다.

5월13일부터는 스위스 취리히 리트베르크 뮤지엄이 개최한 '세계의 정원'전에 한국 대표 작가로 나선다. 이 전시는 고대, 르네상스, 이슬람, 영국, 중국 등 시대·국가별 정원 역사와 형태를 소재로 한 현대미술작품들로 채워진다. 존 케이지, 아이 웨이웨이, 데이빗 호크니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참여한다.

이 작가는 단독 공간에서 지난 1년간 준비한 담양 소재원 주제 병풍형식 비디오 작품을 음향과 함께 전시한다. 특히 리트베르크 뮤지엄 역사상 한국작가 작품이 전시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전시 오프닝에는 이 작가를 비롯해 최형식 군수, 변원경 안도파인아트 대표, 취리히 시장과 의회 의장이 참석한다.

7월에는 아시아로 넘어온다.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7월 29일~8월29일 열리는 '2016 조지타운페스티벌'에 참가한다. 특별부스에서 '조준도-스타워즈', '진주귀걸이 소녀의 눈물', '만화병풍', '미인도와 오송빌 백작부인' 등 최근작들을 선보인다.

지난 2008년 조지타운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매년 펼쳐지는 페스티벌은 전통·현대 공연, 공공 설치작품 등 실험적 예술행사를 진행한다. 그밖에 오는 9월 부산 비엔날레, 중국 베이징 798예술구 '화이트박스', 11월 벨기에 지브라스트라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도시 야경'...양호열 작가 개인전

29일~5월 9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양호열 작가가 29일부터 5월9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개인전 '어두워진 도시, 찬란한 야경'을 개최한다.

지난해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공모에 선정된 양 작가는 도시를 소재로 작업을 한다. 어두운 색을 계속 덧칠하는 방법으로 밤 풍경을 표현하고 배경과 대비되는 화려한 색채를 띤 건물들을 등장시킨다.

작품 '도시야경'은 강물에 한적하게 떠 있는 여객선 위로 도심이 밝게 빛나고 있고, 하늘 곳곳엔 별과 달이 떠있다. '두바이 야경'은 수많은 자동차들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도로를 달리는 풍경을 형상화했다.

양씨는 도시 밤을 일상에 지친 피로와



'두바이 야경'

고뇌를 풀어주는 시간으로 생각한다. 압축된 현실 세계가 밝게 빛나는 모습을 통해 희망을 이야기한다.

조선대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수료한 양씨는 지난해 첫번째 개인전 '인간의 생태계, 도시를 이야기하다'를 열었다. 제26~28회 광주시 미술대전에서 서양화부문 특선을 수상했다. 문의 062-360-8436. /김용희기자 kimyh@

물속에 갇힌 못 다 핀 꽃봉우리들

이선희 5월 31일까지 갤러리 리채 개인전

이선희 작가가 개인전 '사주받은 외계인'을 오는 5월31일까지 갤러리 리채에서 개최한다.

갤러리 리채는 지난 2월 '제1회 청년작가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 작가를 비롯해 채지은, 노여운, 이인성 등이 선정됐다. 갤러리는 작가들에게 전시지원금 200만원과 함께 개인전(4·6·9·12월)을 제공한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존재의 다양성과 평등을 표현한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또 바닷 속 풍경을 그린 작품 '연유도원도'를 통해 세월호를 추모한다.

'연유도원도'는 물 속에서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위한 작품이다. 못 다 핀 꽃봉우리들이 물살에 흔들리는 형상을 통



'연유도원도'

해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작품 '초대받은 손님'은 초기부터 그려왔던 '신' 시리즈다. 작품 속 독특한 의상을 한 남녀를 통해 누구나 특별한 사람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이씨는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으며 개인전 '바늘로 빛은'(서울), '사이'(광주) 등을 가졌다. 문의 062-412-0005. /김용희기자 kimyh@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28일 역사문화시대대학 강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이 문순태 소설가를 초청해 '소설문학 속의 땅 이야기'를 주제로 28일 오후 2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제6기 역사문화시대대학 강좌를 연다.

올해 첫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 문 소설가는 필벽의 '대지', 이기영 '땅', 채만식 '눈 이야기', 송기숙 '암태도'를 소개하며 소유와 자본개념에서 토지를 비판한다.

또 대하소설 박경리 '토지'를 통해 역사와 함께 숨 쉬는 땅을 말하고 조정래

'유형의 땅'과 임철우 '아버지'에서 역사, 전쟁으로 상처 받은 땅을 그린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역사문화시대대학은 5월12일 '지명으로 본 광주평 이야기'(김경수 한토지리연구소장), 5월19일 '삶의 기록인 토지의 변천사'(노경수 광주대 교수), 5월26일 '땅에서 본 인문풍속'(김두규 우석대 교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6월2일에는 전북 완주로 떠나는 인문학여행이 준비됐다. 문의 062-234-272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같은 영화, 다른 생각

광주극장 28일 '사울의 아들' 토크행사

영화를 보고,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궁금해지는 경우가 있다.

광주극장은 매달 한 사람의 관객이자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활동중인 이들이 추천한 영화를 함께 보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영화에 담긴 역사적, 문화적 이슈를 탐구하고 미학적, 심리학적 분석 등 영화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첫 행사는 오는 28일 오후 7시 열리며 영화 '사울의 아들' 상영 후 유재홍 전남대 불문과 교수가 토크 행사를 갖는다.

'사울의 아들'은 1944년, 아우슈비츠 시체 소각장에서



'사울의 아들'

시체 처리반인 '존터코만도'로 일하는 남자 '사울'이 주검 속에서 아들을 발견하고 그의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이다. 헝가리 출신 라즐로 네메스 감독 데뷔작으로 칸영화제 대상과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이다.

이어 독립영화인 조대영(5월28일) 씨가 영화 '개를'을 함께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신형철 문학평론가(6월



'개를'

2일)는 '동주', 유맹철 광주시네마테크 극장(7월 16일)은 '하늘을 걷는 남자'를 보고 토크에 참여한다. 그밖에 나희덕 시인(9월22일)은 '아무르',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10월 20일)는 '더 랍스타'를 함께 관람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티켓 가격 6000원. cafe.naver.com/cinemagwangju.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유탑 유블레스호텔 제주

제주 바다 앞 프리미엄 수익형 호텔

유탑 유블레스호텔 제주

에메랄드 빛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뛰어난 조망과 옥상 바비큐장, 야외테라스, 옥상정원 등 수준 높은 부대시설 고품격 설계로 눈부신 미래가치가 펼쳐집니다

1 연 12% 10년 확정수익보장 (실투자금 대비 VAT 제외/50% 대출조건)

2 계약시부터 계약금×연 5% 수익지급

3 연 10일 무료숙박 (성수기 2일/비수기 8일)

분양문의 **1600-2949**

■ 계약고객 상품권 증정

■ 상기 위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컷으로 실제 사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역선 1층)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400여점 전시 판매도 가능

한라산, 본행사, 함덕2구 복지회관, 하나로마트, 함덕마을소, 오션그랜드호텔, 신협, 함덕우체국, 제주공항, 제주항, 율리9길

■ 계약고객 상품권 증정

■ 상기 위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컷으로 실제 사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